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시다

핵심 구절: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러 위를 보시니
그 사람이 보이자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서둘러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네 집에 머물러야 하겠노라.’”

누가복음 19:5

선정된 성경 구절:

누가복음 19:1-10

삭개오는 여리고 지방에 살던 부유한 세리였습니다. 유대인인 그는 세리들이 납세자들을 속이는 것으로 악명이 높았기 때문에 동족들에게 경멸을 받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는 로마 정부를 위해 일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여리고를 지나가시자, 기록에 따르면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고 싶었으나 키가 작아 군중 위로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서 그쪽으로 오시는 것을 보고자 앞서 달려가 무화과나무에 올라갔다.” 누가복음 19:3,4

이 핵심 구절은 예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읽으시는 능력을 지니셨음을 보여줍니다. 유대인 구경꾼들의 오만함은 명백했습니다. 그들은 스승께서 자신들이 죄인으로 여기는 이 사람의 집에서 식사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누가복음 19:6,7

그 후 삭개오는 배상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으며, 자신이 해를 입힌 사람들에게는 네 배로 배상하겠다고 했습니다(누가복음 19:8). 모세의 율법은 일반적으로 네 배로 배상할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보통은 피해액에 5분의 1을 더한 금액이었습니다. (레위기 5:14-16; 민수기 5:5-7). 삭개오는 그 이상의 일을 행한 것이다. 그러자 예수님은 구원이 삭개오의 집에 이르렀다고 선포하셨다. 이는 신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가 하나님의 사역에 쓰일 만한 성품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받았음을 시사하는 듯하다. 누가복음 19:9

그리스도를 따르는 전념한 신자로서, 우리는 앞서 언급한 이야기에서 우리 자신의 신앙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훈들은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주님과 매우 가까이 머물러야 할 필요성을 깨닫게 해 줍니다. 불완전한 인간으로서, 성령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조차도 죄에 사로잡힐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행위는 의도치 않은 것일 수도 있고, 부분적으로 고의적인 것일 수도 있으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죄의 행위가 발생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로 회복되려면 이를 인정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기도와 거룩한 생각으로 마음을 채우는 것은 우리 삶에서 죄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줄이는 데 있어 두 가지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한 저명한 기독교 작가는 이 교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우리는 유대 시대의 말기와 육적인 이스라엘에 속했던 이 사건과, 이 시대의 말기와 영적인 이스라엘 사이에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주님의 은혜의 언약에서 타락한 자들을 발견하는데, 이는 샅대야가 주님의 율법의 언약에서 타락했던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어느 정도 죄 가운데 살며, 자신들도 부당하고 양심에 어긋난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의 메시지, 즉 큰 기쁨의 기쁜 소식을 가지고 그들을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만일 그들 중 누군가가 현재의 진리에 관심을 보인다면, 우리 주님이시자 머리이신 분이 삭개오를 도우신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돕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삭개오의 경험 속에서 우리는 타인, 특히 믿음의 가족인 그리스도 안의 형제자매들과 교제할 때 본받아야 할 놀라운 모범을 봅니다.